9기 전여대협 평가 (초안)

1. 9기 전여대협 총평

1) 대중사업을 규모 있고 다양한 내용과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전여대협 반성폭력 문화제, 여성강좌, 이라크 파병반대 여성 1000인 선언, 호주제 폐지 과학생회장 선언운동, 대한민국 여성축제 등, 이외에도 많은 대중사업을 규모 있고 다양하게 펼쳐냈습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전여대협의 이름을 알리고 위상을 높여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중사업이 1회적인 사업으로 그치게 되는 경우로도 되었습니다.

2) 다양한 내용의 여성사안들을 사업화 하려는 노력을 활발히 하였습니다.
성폭력, 호주제, 여성과 통일, 전쟁과 여성, 일본군 '위안부', 성매매, 여성농민의 문제 등 여성들의 삶과 연관되는 다양한 내용들을 직접 사업과 투쟁으로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다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3) 학우들에 대한 책임성으로 사업과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냈습니다.
총여학생회 역량이나 간부들의 여학생운동에 대한 경험과 준비 정도가 높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우들에 대한 대중적 책임을 인식하고 사업과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냈습니다. 그러나 여학우들을 직접 만나는 과정을 통해 여학우들을 주체로 내세우는 과정으로 사업과 투쟁을 진행하는데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4) 사람사업의 정형과 조직확대강화 방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새내기 사업, 소모임, 과여학부 사업 등 사람사업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학일꾼들이 사람사업에 대한 관점과 정형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조직화의 성과가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모임, 과여학부 사업을 통해 여학생운동 인자 발굴의 조직적 틀을 만들어가려는 과정도 깊이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단위에서는 사업과 투쟁을 해나갈 때 기층 단위에 제안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계속 해나감으로써 단과대 여학생운동 인자를 만들어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5) 투쟁과제를 설정할 때 총체적 통찰이 부족합니다.
여학생회에서 해야할 핵심투쟁과제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 서로 연결해서 풀어나가거나 우선적으로 진행해야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총체적 통찰이 부족하여 사업과 투쟁이 나열적으로 진행되기도 하며 똑 같은 비중으로 제기되다 보니 객관적으로 다 하기 어려운 상황이 늘 발생합니다. 투쟁과제에 대해 총체적 통찰을 해나가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6) 학생운동 사회 내 가부장적인 모습들에 대한 문제제기와 의식화 활동을 벌려냈습니다.

2. 9기 전여대협 대중투쟁 평가

1)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 / 반미자주화 투쟁 평가

① 전쟁반대, 이라크파병반대를 중심으로 한 반미투쟁을 활발히 전개했던 해였습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들고 남북교류, 민족 공조를 통해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여성 피해와 미국의 한반도 지배 정책으로 인한 여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깨고, 통일이 여성해방으로 가는 과정에 주요한 기점임을 인식하며 지속적인 사업과 투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올초 미국에 의한 이라크전쟁에 대해 국내외적 비난이 빗발치고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면서 여학단위에서도 반전

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전쟁반대, 이라크파병반대에 대한 전체적인 투쟁과 사업은 물론이고, 특히 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악영향과 직간접적인 피해 등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학우들에게 의식화하였습니다. 통일연대 여성위원회를 통해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의 구호를 들고 전쟁반대 평화실천 활동도 계기를 살려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8월에는 지역에서 여성단체들과 여학단위가 함께 대구경북지역 통일여성캠페인, 광주전남여성통일큰잔치 등을 진행했으며, 8.15 민족공동행사 때에도 3회 여성통일한마당을 통해 여성통일운동의 내용을 더욱 담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 이행투쟁과 반미자주화 투쟁 등에 대한 여학단위 자체의 계획이 부족한 것과 지속적으로 투쟁을 벌여내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② 조국통일, 반미자주화 투쟁에 있어 여성통일운동의 내용과 전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국통일, 반미자주화를 여성해방의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지만, 연관고리 및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통일운동이 아직 단편적인 내용과 형식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동선언 이행, 반미자주화 투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사업과 투쟁 방도들에 대한 여학단위 자체의 정형이 부족합니다. 또한 여학단위에서 여성통일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심을 높여내는 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③ 정세 인식이 대체로 부족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세에 대한 인식이 즉각적이지 못했습니다. 정세는 격동적으로 흘러가는데 이에 대한 토론을 별로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조직생활 속에서 정세 토론을 일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정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절박성이 부족하다보니 사업과 투쟁을 주동성 있게 만들어가지 못했고 전망성 있게 그려내지 못했던 부분도 많습니다.

2) 반가부장제 운동 평가

(반가부장제 운동 전반을 평가하되, 그 중 중심적으로 진행한 투쟁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평가합니다.)

<반가부장제 운동 전반 평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반가부장제 운동에 주를 많이 돌리고 활동해왔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대중사업을 계기로 다양한 내용의 가부장적 모순들을 제기하고 의식화했습니다.

반가부장제 운동 전반이 사안별로 분절적으로 진행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성폭력, 호주제, 성매매 등 모두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지배라는 내용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연결지점을 적극 활용하여 진행하기 보다 각각 분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점과 맞물려 반가부장제 운동의 의식화 또한 본질적이고 비약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의식화가 1회적이었던 점과 핵심을 잡지 못하고 여러 문제를 제기한데 그친 점, 학우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바꾸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사색과 연구가 부족했던 점 등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성폭력 운동>

상반기 반성폭력 운동을 핵심적 과제로 삼고 활동해왔습니다.
많은 대학에서 '반성폭력'을 핵심 내용으로 강연, 여러 매체를 통한 일상의식화 및 기획선전,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문화제 등의 대중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각 대학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핵심적 과제로 삼고 활동했던 것을 바탕으로 지난 5월 <전여대협 반성폭력 문화제>를 성사할 수 있었습니다. 반성폭력 문화제를 준비해가면서 여러 대학에서 학우들과 함께 반성폭력 선언운동을 대중적으로 진행하고자 자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여러 대학이 실제로 대중적으로 반성폭력 선언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성폭력 문화제는 여러 대학에서 반성폭력운동의 흐름을 주동적으로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점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전여대협 반성폭력 문화제>는 반성폭력 운동을 전국적인 차원으로 모아내고 기층 대학에서 직접 만들어낸 활동

의 모범들을 총화하는 자리로, 대중사업의 새로운 정형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성폭력 운동이 구체화, 심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각 대학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꾸준히 벌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폭력 운동이 답습되거나 같은 내용의 의식화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 등 한 단계 도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테면, 성폭력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과 생활을 토대로 반성폭력 운동의 내용을 마련하고 활동을 계획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 의식화에 머무르거나 대중사업에서 1회적으로 진행하는 기획사업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몇몇 대학에서 성폭력 실태조사나 의식조사 등을 진행한 경우에도 이를 제대로 분석하여 반성폭력 운동의 밑천으로 삼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각 대학마다 학우들의 구체적 인식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반성폭력 운동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대학 학우들의 인식정도와 현황에 맞게 심화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호주제 폐지 운동>

호주제 폐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각 대학마다 부모성 함께 쓰기, 호주제 폐지 서명운동, 호주제 폐지 강연회, 호주제 폐지 기획전 등 호주제 폐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왔으며, 대학 내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켰습니다. 특히 경희대의 경우, 학우들과 일꾼들을 대상으로 호주제 폐지 강연회는 물론 여러 차례에 걸친 의식화를 진행했으며, 경희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와 함께 활동하여 30명 이상의 일꾼들이 부모성함께쓰기(혹은 부모성안쓰기)에 직접 동참하도록 사업하고 그 일꾼들을 모아 총여에서 직접 강연을 하고 함께 부모성함께쓰기 조형물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중사업에서 학우들과 함께 부모성 함께 쓰기 열쇠고리를 만들어주는 활동을 하는 등 호주제 폐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상반기 각 대학별로 호주제 투쟁을 하반기 전국적인 차원으로 호주제 폐지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상반기 각 대학에서 여러 대중사업과 투쟁을 통해 호주제 폐지에 대해 알려나갔으며 하반기 한총련 대의원 호주제 폐지 특별결의문 채택, 한총련 대의원 호주제 폐지 선언문 발표, 전국 대학 과학생회장 호주제 폐지 선언, 대한민국 여성축제 등 전국적인 차원으로 모아 호주제 폐지 투쟁을 활발하게 벌였습니다.

호주제 폐지 운동을 더욱 본질적인 투쟁으로 발전시키고 계속적인 흐름을 만드는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호주제 폐지는 단순히 하나의 법을 폐지하는 것을 넘어서 성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화와 조직화가 진행되어야 하는 운동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법을 폐지하는 것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호주제 폐지의 주체는 국회의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우들을 더욱 근본적으로 의식화하고 학우들을 호주제 폐지 운동의 주체로 세우는데 부족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제 폐지 투쟁에 대한 주동적이고 계속적인 흐름을 만들지 못한 측면도 존재합니다. 또한 여성단체들에서 진행하는 호주제 폐지 운동의 흐름을 따라가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시기적절하고 기동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반기 호주제폐지 과학생회 선언운동의 경우, 각 대학의 흐름이 늦어지면서 선언운동을 모으고 기자회견을 하는 일정이 늦어졌고, 기자회견 이후에도 적절한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하였던 바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국무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의결했을 때 이에 대해 전여대협 차원으로 제 때 성명서를 내거나 각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지 못한 부족지점이 있으며, 국무회의 통과 이후 호주제 폐지 흐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으며 호주제 폐지 운동을 어떻게 만들어가야할 것인지에 대한 정세전망을 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학생운동사회 내 가부장적 인식과 모습에 대한 의식화 활동>

학생운동사회 내 가부장적 인식과 모습에 대한 교양사업을 진행한 것 자체가 성과입니다.
지난해에 진행했던 의식조사 및 각종 인터넷 교양(문제제기)의 성과에 이어 올해에도 상반기 한총련 대의원대회에서의 <한총련 일꾼들의 의식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전여대협 기획연재-양성평등한 학생운동사회를 위하여>를 진행하는 등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을 비롯한 가부장적 인식에 대한 교양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여대협의 각종 제기가 지속적이지 못하고 다소 표면적이었다는 비판(한계)을 극복하기 위해 기획연재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한총련 대의원 대회에서 호주제 폐지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거나 한총련 대의원 호주제 폐지 선언을 통해 한총련 내에 있는 호주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깨는 과정으로 만들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기획연재가 2회에 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각 대학에서 기획연재의 내용과 학생운동사회 가부장적 인식에 대한 토론을 여학단위에서 보장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의식화가 한 단계 심화되지 못하였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여성주의에 대한 각종 논의, 논란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 적극적이고 시기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한총련 홈페이지에서는 여성주의에 대한 사안별 논란을 비롯해 여성해방운동에 대한 전반 내용을 다루는 논의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일꾼들이 개별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방치해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터넷 상에서의 여러 의견들을 잘 활용하면 학생운동사회 내 가부장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교양사업 뿐만 아니라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도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계기를 활용하지 못하고, 적극적이며 시기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학생 운동 사회 내 가부장성에 대한 문제제기의 과정에 기층 여학일꾼들을 주체로 세워내고 교양 토론하게 하는 과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전여대협 중집 차원으로의 논의로 의견이 제출되기도 하다 보니 기층에서 주체로 되지 못하거나, 전반 내용의 합의를 다 보지 못하고 문제가 제기되는 과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대한 직접적인 교양자가 될 기층 여학일꾼들을 주체로 세워내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기층 여학일꾼들이 그저 바라보는 입장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데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3) 여성민중생존권 투쟁 및 연대사업 평가

농활을 통해 전여농과의 연대사업이 강화되었으며, 농학 4자 연대에 대한 관점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3월에 진행되었던 농학연대일꾼수련회에서 전여농과 전여대협이 여성농민운동 및 여농학연대의 관점에서 바라본 농활 혁신 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함께 토론함으로써 전여대협-한총련-전여농-전농의 농학 4자 연대에 대한 관점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성과로 부경 지역 등에서는 이전보다 농활을 준비할 때 여농학연대 주체를 더욱 적극적으로 만들기도 하였고 전남에서는 여성농민이 마을 주체가 된 마을을 꾸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4자 연대가 기층까지 실현되기에 아직 전일적인 조직현황이 아니며, 4자연대 차원으로 합의한 내용이 전국적으로 해설되지 못한 부분도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제기한 만큼의 교양과 내용을 담보하거나 집행하지 못한 실질 역량 부족의 문제도 크게 나섰습니다.
농활을 준비하면서 여성농민운동에 대한 농활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동영상을 전여농과 전여대협이 함께 제작하고 인터넷으로 배포하는 등 전여농과의 연대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성노동권 투쟁에 대해서는 의식 자체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여성노동권 투쟁에 대한 의식 자체가 부족하였으며,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투쟁을 해나가기 위한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충남 예산 차시중 사건을 계기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관련해서 계획을 제출한 바 있었지만, 진행된 활동은 그다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여성노동권 투쟁에 대한 지속적인 계획이 없고 인식이 부족한데 기인합니다.
이후에는 여성노동자 투쟁에 대한 결합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권 투쟁에 대한 자체 계획을 세우고 연대사업의 폭과 깊이를 비상히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연대사업 평가>

청년, 학생단위와의 연대사업
- 3.8 투쟁을 함께 진행하면서 학단위와의 연대사업을 진행하였다. 지속적으로 진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 통일사업 등 청년학생단위와의 연대를 계속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여성단체 연대사업
- 대한민국여성축제 등 여러 사업들을 함께 진행하면서 전여대협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여성단체들과의 사업이 사안별로 분절적이며, 여성단체들의 경우 아직까지 전여대협에 대해 사람동원 또는 실무적인 역할을 맡기는 수준으로 이해하는 정도가 많습니다.

4) 대중의식화 평가

여러 대학에서 대중사업을 통해 다양한 내용을 창발적으로 의식화했습니다.
반성폭력 운동, 호주제 폐지, 반성매매 운동 등의 과제를 전여대협 투쟁과제로 확고히 하며 구체화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의식화하였습니다. 주제가 다양해지고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우들을 사업과 투쟁의 주체로 세워내기 위한 의식화 사업은 부족한 현황입니다.
대중의식화는 학우들의 의식을 높여내고 사업과 투쟁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며 주체로 세워내기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의식화가 대중사업에서 기획선전 식으로 진행되면서 내용적으로 심화되거나 상승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중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진행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대중사업에서의 1회적인 대중의식화를 뛰어넘어, 한해 대중의식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며 장기적인 계획과 내용적 전망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에 기반하여 대중의식화를 진행할 때, 학우들의 의식을 점차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의식화사업이 학우들의 의식에 기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대중의식화를 진행하는 것은 학우들의 의식을 높이고 학우들을 주체로 세워내기 위한 것인만큼 학우들의 의식 정도에 기반하여 의식화의 내용과 방도를 도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식화사업의 내용들이 일반적인 내용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몇 대학에서 학우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고 이는 학우들의 의식에 근거해 대중의식화를 진행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거의 모든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성과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에 그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바탕으로 의식화 내용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 관련 의식조사를 진행한 후에 그에 대한 분석 없이 의식화를 하다보니, 학우들이 성폭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어떠한지, 생활 속에서 학우들이 느끼는 성폭력의 실태가 어떠한지 등을 조사하고서도 구체적인 의식화 방도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폭력에 대해 일반적인 내용을 대중사업 때마다 반복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의식화사업이 학우들의 의식에 기반하여 상승할 수 있도록 학우들과의 소통을 통한 의식화사업, 심층적 분석을 통한 상승적 의식화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화가 기동적이고 시기적절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세 인식이 대체로 부족한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정세에 대한 인식이 민첩하지 못하기에 그에 대한 의식화 또한 제 때에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3. 9기 전여대협 조직사상운동 평가

1) 모든 사업과 투쟁을 사람사업의 관점으로 진행하는데 부족함이 나섰고, 소모임 과여부 강화 사업이 제기한 만큼의 수준으로 왕성하게 전개되지 못하여 전여대협 대오를 확대하고 조직적 성과를 남기는 데 부족함이 많습니다.
매 사업과 투쟁을 사람사업의 관점으로 대하며 구체적 조직화로 그 성과를 총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회 인자를 발굴하는 기층체계인 소모임 과여부 사업에 대한 정형이 부족하고, 많은 사업과 투쟁 속에서 소모임 과

여부 사업을 그 중요성에 맞게끔 맞물려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 소모임 과여부 사업을 제기하고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모임 과여부 사업에 대한 명확한 주체나 그에 대한 계획이 1년을 관통하는 장기적 내용으로 마련되지 않고 모든 간부들의 집단적인 논의와 참여로 만들어지지 못하다 보니 주체 당사자에게만 맡겨지거나 일상적인 지도나 총화가 아닌 대중사업이 있을 때 함께 할 것을 제안하는 정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여대협 조직 확대 강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체적으로 여학생운동가들을 발굴하고 양성할 체계를 튼튼히 꾸려나가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2) 핵심일꾼들의 준비정도를 비약적으로 높여나가야 합니다.
여학생회는 해야할 일에 비해 늘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몫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 지난 과정에서의 우리의 경험이며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몫을 굳건히 해나가고 있는 여학일꾼들의 긍지를 높여 요구되는 지점을 더 높이 실현해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일꾼들이 내용적 중심을 확고히 쥐고 우리의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학우 대중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여학우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건설한 총여학생회 조직이라는 것을 명심하며 핵심일꾼들은 스스로의 준비정도를 비약적으로 높여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학습을 통해, 정세 인식력과 정치 실무적 자질을 높이며, 핵심일꾼으로서의 준비정도를 계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합니다.
또 집단생활을 통해 간부 일꾼들의 마음을 모으고 간부일꾼들의 역량을 백배로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겠습니다.
한 사람이 벽돌 10장을 들 수 있다면 10사람은 벽돌 1,000장을 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물리적 힘의 도합만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의 지혜와 의지를 모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여학일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3) 여학생운동을 새 시대의 관점으로 새롭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새학생운동에 대한 고민을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새 시대는 대중들의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요구와 그 참여가 그야말로 대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폭되는 학우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구체적으로 수렴하고 그것을 학우들의 힘으로 이루어나가려는 새로운 여학생운동을 구상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2003년, 새 조직 건설이나 현재로서도 너무 많은 일들 속에서 새 시대에 맞는 준비 및 마음 가짐을 바로 가지지 못하였다고 평가해볼 수 있겠습니다.
새 시대의 관점으로 여학생운동을 풀어나갈 구체적 과제 및 방도를 찾아나가고 새학생운동에서 여학생운동의 내용이 함께 풀려나가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야겠습니다.

4) 몇몇 대학들에서 학생회 골간 단위와의 마찰이 심합니다.
많은 대학들에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내용을 부차적이거나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해 여학생회와 학생회와의 마찰이 발생합니다. 지속적인 교양과 여학생운동에 대한 내용적 제기를 계속 해나감으로써 그런 마찰을 극복하도록 해야겠습니다.

10기 전여대협 총노선 초안

발신 : 10기 전여대협(건)
수신 : 전국의 총여학생회 및 여학일꾼들
용도 : 토론용

1. 9기 평가

-별도 문서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2. 총노선 수립의 의의와 목표

1. 과학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전망을 수립하여 전여대협 조직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2. 9기 전여대협 평가에 기반해 올해의 핵심적인 방향과 내용을 제출하여 한계는 극복하고 성과는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3. 총노선 수립방향

학우들과 당면 정세를 합의해가는 속에서 올해의 여학생운동의 과제와 목표지점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전개하면서 50만 여학우의 1년 계획으로 만들어갑시다.

4. 정세

-전체정세

반미반전운동을 중심적으로 해 나가자.

미국대선 선거운동이 이미 시작되었다. 11월에 치러지는 선거에 부시는 미국시민들에게 자기의 당선을 공고히 하는 무언가를 벌여야 한다. 전쟁을 해야 흥하는 나라 경제를 위해서 다시 한 번 호시탐탐 한반도를 집어삼킬 수 있게, 후세인, 이란을 제거한후 미국이 악의 축이라 규정했던 마지막 나라인 이북에 대해 전쟁책동, 대북 고립압살책동을 벌일 것이다.

노무현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고 연두교서에서 밝히고 있다.

용산미군기지가 2007년까지 완전이전을 목표로 한강이남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 전쟁준비를 다그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전담하는 미군기지 이전 비용은 6조원에 이른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게 요구한 이전비용내역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 한국물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라는 것에도 거부했다고 한다. 오만한 미국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북미지도자 모임에서도 미국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거부권을 고민하고 있고, 세계 각 국에서 미국의 침략적인 이라크 전쟁에 반대해 나서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부시 낙선운동에 흐름이 모아지고 있다..

6.15공동선언을 높이 들고 조국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미국이 제아무리 우리나라에 분열책동을 하고 전쟁책동을 하고 있어도 우리민족을 갈라놓을수 없다. 6.15공동선언이 밝혀준 길을 따라서 우리민족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며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실천적으로 만들어나가자. 미국과 미국에 붙어 우리 민중들을 탄압하고 미국의 전쟁책동에 부화뇌동하는 친미매국세력의 발악적 책동을 물리쳐서 민족에게 있어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 2004년으로 되게 하자.

한나라당 없는 총선을 치루어내고 올해는 기어코 민중들의 새정치열망에 화답하면서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을 꼭 이루어내자..

돈나라당, 딴나라당으로 불리우고 있는 정경유착, 매국정치, 부패정치의 산실인 한나라당을 하루 빨리 해체시키고 온 국민의 열망인 민중들을 위한 제대로 된 참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진보세력을 요구하고 있다. 17대총선을 통해 민주화과정을 추진하느냐 아니냐가 판가름난다. 모습 바꾸기를 밥먹듯이 하는 구태 기존 정치권이 아니라 진보적 요구를 정당히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해 싸워가고 있는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총선에서 민중들에게 검증받으면서 2004년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을 이루어 내자. 진보정당 정치세력화를 통해 우리는 제도정치의 주인이 될 것이다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을 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가 청년실업과 함께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투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앞세워서 노동법을 개악하여 노동조건 악화시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국회 비준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고, 농민들은 농가부채에 농산물 수입개방에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심정에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 투쟁을 벌여가야 할 것이다.

학생운동조직의 단결 강화를 실현하자.

자주 통일의 활로를 열어갈 2004년에 청년학생운동이 해야할 몫은 크다. 반미반전, 진보정당정치세력화의 투쟁을 잘 벌여가기 위해서도 광범위한 학우들의 요구를 받아안기 위해서도 학생운동 단결 강화를 실현해야 한다.

▲토론과제: 일꾼들의 정세인식력이 부족한데 어떤 방도로 높여낼 것인가?

운동의 처음 시작은 정세를 읽는 것부터이다.

정세를 의식하기 위한 노력을 생활화하자. 사안별 기사도 종합적으로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어떠한 투쟁을 대함에 있어서도 그 투쟁의 의의와 목표, 핵심구호를 알려고 노력하고 조국통일과 여성해방의 연관고리를 찾아야 한다.

-여성정세

총선을 통해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발판을 이루어낼 것이다.

최근 정개특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 정당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며 비례대표제 여성 50%할당제를 무산시켰다. 현 정치에서는 여성이 주체가 되는 새정치실현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정치에서의 여성비율이 전세계적으로 꼴찌에 가까운 우리나라이어서 정책에 여성의 문제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여성이 진보적 주체로 나서야 한다.

맑은 정치 네트워크에서 여성후보 102인을 제출하면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당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민주노동당에서도 여성후보를 내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는 것은 대세이며 시대의 요구이다.

호주제 폐지, 성매매 방지법 개정 등 여성운동에 있어서의 법제도적 성과를 거머쥘 것이다.

호주제가 2003년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을 이등국민으로 법제도화하는 호주제에 대해 전국민의 80%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국회의원들만 모르는지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성매매여성들의 투쟁에 있어 2004년은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새움터에서 국가상대로 한 법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안을 잘 마련하는 문제와 법적소송이 잘 진행되어서 여성들을 옭아매고 있는 성매매를 없애고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해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 노동기구(ILO)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자

ILO 는 유엔의 다른 기구와는 달리 구속력과 강제력을 가진다. 작년에 정식안건으로 채택되기 위한 활동이 일본측의 로비로 인해 무산되었지만 올해 또한 다시 해보려고 하고 있다. 매년 6월에 ILO회의가 열리니만큼 이번에는 정식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이끌어내자.

취업을 비롯한 여성노동권의 문제가 여성을 피폐화시키고 있다.

정부의 노동법 개악으로 인해서 생리휴가, 월차휴가가 폐지되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70%가 여성인데다가 여대생들의 취업란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여대생들도 예비 여성노동자이기 때문

에 여성노동권에 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각인해서 광범위한 연대투쟁으로 만들어 가자.

2회 여성통일대회를 준비하자.
2002년 여성통일대회를 진행하면서 2년에 한번씩 진행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상황에서 우리가 좀더 주동적으로 정세를 만들어 가면서 여성통일운동을 실현해나가자.
여성과 통일의 연관지점을 밝혀내면서 여성들 서로간의 통큰 연대투쟁으로 성과를 극대화 할 것이다.

▲ 토론과제: 여성정세의 핵심은 무엇이고, 여성정세를 이 투쟁, 저 투쟁의 나열식 병렬식이 아니라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세속에서 민족모순, 계급모순, 성모순-3대모순이 가장 잘 체현되어 있는 사업이나 투쟁과제를 핵심적으로 뽑아야한다.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핵심투쟁을 1년 내내 진행하되 시기별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투쟁을 제때에 잘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통해 핵심투쟁을 통한 중심고리가 명확한 가운데 투쟁의 상승을 이루어 내어야 한다.

5. 시기규정

1) 전여대협 10년의 사업과 투쟁을 총결산하면서, 조직에 대한 긍지를 바탕삼아 여학생회의 새학생운동의 지평을 여는 한 해가 될 것이다.
2) 반미반전 6.15공동선언 이행 투쟁에서 여성들의 주체적인 통일운동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6. 총론

2004년은 전여대협에게 어떤 한 해가 될 것인가?
기간 전여대협이 걸어온 10년의 역사를 잘 돌아보고 그 궤적에서 성과와 한계를 제대로 평가하면서 올해를 전여대협 운동에 있어서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정세의 요구이자, 조직발전의 요구이자, 대중의 요구이다.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힘들다.. 어렵다고 얘기한다.
총여학생회 중앙은 있는데 총여학생회의 발이 되어줄 단대, 과조직이 없다는 문제.. 우리를 답답하게 옥죄는 문제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총학생회, 단대학생회 일꾼들의 냉담함과 무관심이 가장 힘들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이다. 여학일꾼들이 여학우대중과 학우대중속에 뿌리 박혀야 한다. 총학생회, 단대학생회 일꾼들의 인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꾼들간의 싸움으로 되어서는 안되는 지점을 분명히 생각하자. 일꾼 또한 우리의 대중이라는 것을 잊지말자.

2004년 전여대협이 나아갈 방향과 목표는 무엇인가?
학우들이 총여학생회와 전여대협에 필요로 하고 목말라 하는지점은 무엇인가
학우들은 성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요구를 가지고 있다.
전국적인 조직으로서의 전여대협의 역할과 위상을 분명히 할 것에 대한 요구를 받아안자.
새로운 여학생운동의 목표와 내용을 실천적으로 만들어가는 한해를 만들어야한다.

여학생운동의 승리의 근거는 무엇인가?
여학우 대중의 지지와 참여에 근거한 자신감이다. 전여대협으로 굳게 뭉쳐 여학우 대중들과 함께 투쟁으로 나서자.

7. 핵심투쟁과제에 대한 토론

—>영역별로 각 학교별 현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핵심사업화 할 것을 토론을 통해 정하고 사업과 투쟁의 구체적 시기흐름과 방도를 정하자.

1) 대중의식화사업

-여학우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잘 받아안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정말 당연하게도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잘 알아야한다. 학우 대중이 학생회의 주인이라는 사고를 가져야 하고 학우들이 모이는곳, 학우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 혹시 학우들이 주인이라고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학생회실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학우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 같은 내용의 의식화의 매번 반복하는 것은 바로 학우들의 의식을 구체적으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식화를 1년의 계획 속에서 진행하자
소통구조나 의식화 내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메일링확보- 새내기들에게 총여학생회는 무엇인가, 양성평등 의식조사등을 진행하여 새내기의 성의식을 기본모델로 해서 1년 총여학생회 대중사업과 결합시켜서 월별로 의식화 계획서를 제출하자.

-전여대협과 학우들이 소통하는 구조는 무엇인가?
일상적 학우만남의 정형을 만들자.
∞직접 만남
강의실, 이동학생회, 과방방문, 학우 대표자 간담회등 대의 체계 발동, 설문사업
학우들을 매 시기 일상적으로 꾸준히 만나고 여학우 의식 파악을 위해 사건을 이슈삼아서 설문을 시기 적절하게 진행하고 설문을 제때 분석하여서 학우들에게 돌려주자.
∞매체를 통한 만남
인터넷, 대중의식을 파악하고 대중에 근간하는 사업-사안별 여학우 인터뷰사업
총여학생회 거점선전공간 마련하기, 언론에 보도자료 보내기, 학내 방송국, 학보사, 교지편집위원회에 투고사업
성명 논평 사업을 통해 총여학생회 입장 제출하기

2) 조직사상운동

-전여대협 운동에 있어서의 긍지를 높이며 10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평가 전망하는 사업(연구소위 꾸리기)
전여대협이 그간 어떻게 활동해 왔는가에 대한 역사 평가 전망하는 연구소위이다. 모이고 완성하는 시기는 구체적으로 더 협의해 봐야할 것이고 형태는 백서로 제출할 예정
주체들이 모여서 자주적 여학생운동에 대한 토론을 진행
백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기층일꾼들과 적극적으로 토론하자
선배님들 초청을 해서 자기 대학 여학생운동에 대한 역사를 돌아보는 과정을 꼭 가지자,
우리 단위의 사업기풍을 평가해서 혁신과제를 찾아보자.

-여학일꾼들의 사상관점과 활동방식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학우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 대중을 만나는 자세와 관점, 대중간부로서의 자각이 부족하다. 학생회는 몇몇 사람들의 모임인 동아리가 아니라 여학우들의 집단적 요구를 풀어가기 위해 직접 선거로 당선된 대표조직이다. 단순히 사업을 하고 마는 주체가 총여학생회가 아니라 학우들의 의식지점을 정확히 잡아내어서 여학생운동을 펼쳐나가는 주체가 되는 것이 총여학생회이다.
활동방식에서도 총여학생회 일꾼 서로간의 명확한 역할정리가 필요하다. 역할이 10개가 되더라도 주체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하루를 사는데 있어서 학습, 투쟁, 조직생활에 있어서의 규율화가 되어야 한다.

-여학생운동 일꾼들의 여성문제에 대한 자각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여성문제에 대해서 연구 사색하는 기풍과 교육교양사업과 문화사업이 필요하다.
복잡한 여성들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고 학우들과 함께 해 나가기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항상 사색하는 기풍을 가지자.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 여성운동의 이론에 대한 학습은 가장 기본이다.
사진, 동영상, 비디오, 노래, 극, 몸짓 등 문화적 요소를 잘 활용하여 학우들에게 여성운동의 내용을 딱딱하지 않은 방법으로 잘 알려나가고 일꾼들 또한 여성운동에 대한 체득, 감화 감동을 받아서 내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자.

-사람을 남기기 위한 총여학생회의 핵심 재생산구조는 어떠해야 하는가?(기층조직 확대방향)
조직확대를 위해 소모임이나 과여부를 만들었더라도 잘 챙기지 못하고 이 단위에서 다시 여학일꾼들이 재생산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많다. 핵심단위 설정을 하고 운영방도를 제출하자. 올해 조직강화를 튼튼히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의 여학생운동은 없다는 사생결단의 각오가 필요하다.

-새로운 여학생운동은 어떻게 펼쳐낼 것이며, 새학생운동과의 연계지점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아직 새학생운동 조직의 상과 경로가 명확하지 못하다.
전여대협은 한총련의 부문계열 조직으로 되어 있다. 선택적인 부분으로 얘기하겠는가-실제 남자도 여성운동을 선택해서 하고 있다. 여성의 문제는 어느 계급계층에서도 나타난다.
부문계열운동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한총련에서 여성운동을 변혁과제로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기간을 제대로 평가하는 속에서 여성문제를 합의해 들어가자. 주체의 노력을 더욱 더 열심히 하고 여학생운동의 전체화하기 위해 노력하자.

-비가입대학에 대한 지도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전여대협 조직 확대사업이다.
매시기 사업과 내용으로 결합시킨다. 3.8을 기점으로 해서 총여들간의 학간연대 실현, 지역에서의 연대의 틀을 마련하자. 이후 흐름을 만들어가자.

3) 대중운동

(1) 투쟁방도
-전국 조직다운 위상을 가지고 다수 대중이 지지하고 참여하는 대중성 있는 방식으로, 정세파급력있고 폭발적인 대중투쟁을 만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려면 일꾼들에게 정세에견력이 있어야 하고 장기적인 시간과 구체적 흐름을 가지고 큰 투쟁을 조직화 해나가야 한다.

-투쟁과제가 나열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제출해야 할 것인가?
정세와 맞물려서 대중운동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사업방법에서 통이 큰 일본새를 가지자.
일꾼의 수가 적고 기층이 제대로 서있지 못하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얼마만큼 통크게 계획하고 사람들을 발동시키는 가에 있다. 여학단위일수록 통큰 일본새가 필요하다.

(2) 대중투쟁과제

① 반미 6.15공동선언 이행투쟁
반미반전, 한반도 전쟁책동 분쇄, 파병반대를 투쟁을 벌여내자.
2004 2회 남북여성통일대회 개최를 위해 투쟁하고, 만남 (그 자체도 민족공조다)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전망을 내어오고 공동과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자.

② 총선투쟁
-총선에서 어떤 내용으로 투쟁할 것인가?
민주노동당 여성후보 지지자 모임-지지선언조직화하자.
시민사회단체의 낙천, 당선운동 결합되는 지점으로 여성정책비교-여성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을 당벌로 분석해보자. 여성관이 좋

은 후보는 당선대상자, 여성관이 없는 후보는 낙선대상자로 자체 분류해보자.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가 있는 학교는 여성분회를 총여학생회에서 책임지는 것에 대해 고민해보자.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여대생은 3. 8 세계 여성의 날을 계기로 여성노동권에 대한 요구를 높이자

③ 민중생존권 쟁취 및 여성연대사업
여성문제는 한 개인이나 하나의 계급 계층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전사회에 걸쳐 있는 여성문제를 여대생들만이 해결할 수 없고 전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고 전면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조건에서 연대사업은 핵심적 요구가 될 수 밖에 없다.

-여성노동자와 어떠한 내용으로 투쟁할것인가
예비여성노동자로서의 여성노동권의 문제-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잘 알자.
집중된 힘이 필요한 여성노동자 사업장에 대한 지지, 지원단을 꾸려서 노동자성을 체득해나가자.

-여성농민들과의 연대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농활에서의 과제는 무엇인가?
전여대협이 끊임없이 제기하는 가운데 2003년에 4자연대가 합의되어 제출한 지점이 있으되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았고, 전국화되지 못하였다. 기층4자연대가 중요하다. 전반학교 주체들에 대한 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핵심적으로 총여학생회 농활을 수행할 수 있는 단위를 꾸려서 여성농민이 주체가 된 마을 농활을 수행하고 이것에 대해 전체 총여학생회에 모범 발굴 전파사업을 하자.
여성농민운동에 대한 인식을 높여내자. 굳이 농활공간이 아니더라도..

④ 반가부장제 - 무엇을 중심적으로 할 것인가.
전사회적인 사상운동으로 되게 해야한다.
반성폭력 학칙 투쟁에 있어서 학칙 제개정이 잘 된 학교에 대한 모범발굴전파사업을 진행하자.
1회적 사업화가 아닌 1년의 계획을 가진 반성폭력 운동을 전개하자!
대중사업을 좀더 다양하게 만들어가자. 반성폭력 문화제나 여성강좌를 통해 만들어내었던 성과 지점을 이어가자.
학생운동내 가부장성을 척결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하자.
성매매, 호주제등 법제도적 투쟁에서 열매를 맺기위해 실천적으로 노력하자.
다양한 영역과 과제에서 여성의 눈으로 투쟁하자.

⑤ 대중 투쟁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광범위한 여학우들을 묶을 수 있는 틀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가져갈 것인가?

사안별 예
1 여성학 2학점화 필수교육-구성원들의 의식 개혁
2 여대생 실업문제
토론회, 세미나, 기업들에 대한 성평등지수 평가, 정부 면담 투쟁, 여성부와 연계한 신직업 페스티벌 전국여성노조 연계한 투쟁
(투쟁참가자의 수준이나 투쟁과제에 걸맞는 투쟁방도가 제출되어야)
3 여성주의 소모임기행
4 3 8 여성의 날 투쟁단, 단체와의 연대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8. 이후 흐름

1/19 초안제출
1/19~27 국별 구체적 내용마련 (조직국, 연사국, 문화국)
1/27~28 전여대협 수련회에서 여학일꾼들과 토론
중상에서 토론을 통해 확정, 완성안 제출

✓ 반성폭력 투쟁 - 전체적인 흐름, 사업화, 상승곡선그리는 것제
✓ 미제국주의 여성파시즘 폭로
✓ 동일운동에서 우리들의 목소
✓ 총선계획
- 우리의 요구를 담은 총선투쟁방도.
- 낙천낙선운동